

‘문수지혜·보현행원’ 아로새겨 미래를 밝히나...

구례 화엄사 사적비 제막식 봉행

1500년 화엄성지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 역사를 담은 사적비가 건립됐다. 화엄사는 9월 22일 경내에 사적비와 도광 선사 부도탑비 건립불사를 회향하고 제막식을 봉행했다.

사적비는 화엄사 창건내력과 원력, 미래문화를 창조해갈 비전 등이 담겼다. 도광 선사(1922~1984)는 화엄사 중흥조로 이번 사적비 건립에 맞춰 부도탑비가 세워졌다. 화엄사 사적비문 8360자와 도광선사 비문 5178자는 지관 스님이 손수 짓고 글씨는 학정 이돈홍·송천 정하건씨가 썼다.

이날 제막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 총무원장 지관 스님, 중앙총회의장 자승 스님,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 등과 김희석 국회의원, 김장환 전남교육감, 김희정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500여명이 동참했다.

사적비 제막에 이은 기념식에서 조계종 법전 중정스님은 “화엄사 사적비는 문수지혜요, 도광당 행적비는 보현행원”이라며 “후학들은 참구하고 참구하라”는 법어를 내렸다.



9월 22일 구례 화엄사 경내에서는 사적비와 도광 선사 부도탑비 제막식이 봉행됐다.

이러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직접 지은 화엄사 사적비문 낭독에 이어 “후대에 표상이 될 대각불사 회향”이라고 치하했다.

주지 종삼 스님은 인사말에서 “화엄사 사적비 제막을 통해 또 다른 천년을 향한 수행정진에 매진하겠다”며, “이런 원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불사에 헌신해 화엄문도의 많은 후학들이 중단의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적비는 2006년 3월 화엄문도 스님들이 사적비 건립의 뜻을 모은 뒤, 남원 이성재 황산대첩비·성철 스님 부도탑비 등 현장당사를 시작으로 원로의원 명선 스님과 종삼 스님 등 불사추진위를 구성해 2년여의 불사 끝에 조성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간추린 화엄사 ‘1500년사’

화엄사는 백제 성왕 22년(544년) 인도에서 온 연기 스님이 창건한 천년 고찰이다. 이후 자장 율사가 당나라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73과를 모셔와 4사자 3층 석탑(불사리공양탑)을 세우고 그 안에 사리를 봉안했다. 의상 대사가 화엄사에 주석하던 문무왕 10년(670년) 3층짜리 장육전을 건립하고 사방벽면을 화엄석경으로 두르면서 화엄사는 대도량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나팔여초 도선 국사가 화엄사를 총림으로 키웠다.

고려시대에 광종의 어머님 받은 흥경 선사에 의해 계속적인 중수 및 보수가 이루어졌고, 문종대(1047~1083)에도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다. 의상 대사의 덕을 흠모한 대각 국사가 화엄사에 주석했던 때도 보수가 이뤄졌다.

그 후 화엄사는 고려 인종(1126~1146)때 정인왕사(定仁王師)에 의해 중수됐고, 명종2년(1172)에는 도선국사비가 건립됐다. 충렬왕(1313~1330)때는 원소

암이 증건됐다. 조선조 세종 6년(1462)에는 선종대본산으로 승격됐다. 그러나 임진왜란 병화로 8가람 81암자 모든 당우와 보물들이 일시에 불타버렸고 인조 8년(1699) 백암 선사 등에 의해 복구됐다. 화엄사가 오늘날 대화엄사로 발전하는 데는 도광 선사의 중창원력이 컸다. 도광 선사는 대웅전 및 각 요사를 중수해 화엄사 면모를 일신했다.

한편 화엄사는 1995년에는 서5층석탑(보물 제133호) 보수공사 도중 부처님 진신사리 22과와 성보유물 16종 72점이 발굴되는 등 선교양종 대본산으로서 사격을 더욱 높이고 있다.



화엄사 중흥조 도광 선사 부도탑비.

“템플스테이 추억 되새겨요”

금산사 ‘추억의 템플스테이’ 10월 4~5일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 절로 수 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연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 송시열 -

질푸른 녹음을 뿜어내던 산사에 가을 옷 갈아입기가 한창인 요즘, 추억을 주제로 템플스테이가 열려 눈길을 끈다.

김재 금산사(주지 원행)는 가을을 맞아 그동안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회원과 함께 올해의 템플스테이를 정리하고 소회를 나누는 ‘추억의 템플스테이-만남과 나눔’을 10월 4~5일 개최한다.

연인원 5000명이 동참해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금산사 템플스테이. 이번 행사에서는 포토그래퍼 이승호 작가의 템플스테이 사진전, 스위스와 독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베티나와 친구들’의 이색 사물놀이, 요가지



금산사가 2007년 가을 개최한 ‘추억의 템플스테이’ 모습.

도, 구중구포 제다실습, 연화선·김가림 작가의 설치 미술전, 판소리 공연, 사물놀이패 동남풍의 비나리 공연, 삼동 농악가락, 일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린다.

한편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10월 10일 법만 스님이 직접 나서 참선기초 등을 법문하는 ‘참선으로 만나’와 사찰음식 전문가 무공 스님(고창중합노인 복지관장)이 지도하는 ‘전통 사찰의 음식으로 꾸미는 웰빙 식단’ 산사체험을 개최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장에서 미륵까지’

금산사 선운사 순례



원행 스님, 법만 스님.

지난 여름 ‘남도의 선지식을 찾아서’ 템플스테이로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호남불교문화원(원장 이준엽)이 이번에는 전북지역 대표사찰인 김제 금산사와 고창 선운사를 순례하는 ‘지장에서 미륵까지’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지장에서 미륵까지’는 천년 지장도량 선운사와 동방 최고의 미륵도량 금산사를 찾아 하루씩 머물면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에게 삶의 지혜를 듣는 차담 등을 갖는다. (062)383-3538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최초 불교실버타운 개원

상락정토마을 9월 27일 개원 법회 봉행

전북 최초의 불교전문실버타운이 개원했다. 전주 보문중 정혜사는 불교전문실버타운 상락정토마을(원장 지각)을 건립하고 9월 27일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대지 4582㎡, 연면적 1471㎡ 규모의 지상 3층으로 건립된 ‘상락정토마을’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각종편의를 제공해 노후를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는 양로시설이다.

상락정토마을 관계자는 “상락정토마을은 도심에 위치한 가족들이 어르신들을 찾아 볼기 편하다는 편리성과 운영사찰인 정혜사와 밀접해 노인들의 신행생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락정토마을은 의사와 간호사를 총괄해 건강관리, 외래병원진료, 치료약품의 무약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말벗 서비스 및 전문가에 의한 상담, 다도, 독서치료, 노래교실, 사경, 종이접기 등 정서함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주대장은 60세 이상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어르신이며 자원봉사와 후원자도 함께 모집한다. (063)286-2020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최초의 불교전문실버타운으로 9월 27일 개원한 상락정토마을.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넘어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골라!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 II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 I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필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였던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발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최고급 천연방수 ‘뉴백’ 사용

있다.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에게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백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중하고 있다. 또한 “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 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넘어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사이즈 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레저, 등산에 아이젠 트래킹화!



• 남성용
• 특수아이젠 부착으로 미끄럼 방지
• 수많은 천하 테트론을 거쳐 개발된 신기술 등산화
• 악천후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눈송이 스템의 일장
• 여성용(색상 약간)
• 가격 88,000원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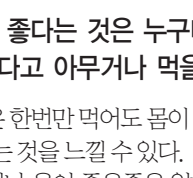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앞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터력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만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중정판매가 130,000원에서 100윳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정호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웃!

웃가네 토종참웃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웃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웃이 좋은 것은 알지만 웃맛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웃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



• 내용량 : 1박스(80ml × 60포) 2개입분 • 1병(1.5L)

! 불국토를 찾아서

전북불교회관 경로식당

“맛·영양·자비심 버무려 조리해요”

호남 제일 도시 전주의 도심인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 사이에는 전북불교회관(원감 보산)이 자리한다. 전북불교회관은 전북 불교의 포교중심지로 지역 불심을 다져온 호남 제일의 포교도량이다.

전북지역 불교계가 법회와 포교만큼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다. 그 가운데 금산사 복지원과 전북 자원봉사단, 운전불자연합회 주축으로 운영 중인 무료 경로식당은 지역 내에서도 알차기로 손꼽히는 시설이다.

아직은 햇살이 따가운 9월의 어느 날 아침. 전주순물련 회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전주순물련 회원들은 쉬는 날을 이용해 도시락 배달봉사를 하기 위해 모였다.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말사 자원봉사단도 도시락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인다.

한쪽에서는 도시락을 싸서 가방에 넣고 한쪽에서는 배식

교회관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명소가 됐다. 식사 공간에 이는 휴식공간 역할을 넘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사랑방 역할까지 해온지 이미 오래다.

전주 시내 다른 무료급식소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전북불교회관 경로식당을 찾는다. 이유는 이 경로식당의 맛과 영양을 갖춘 짜임새 있는 식단 구성이 어르신들 사이에 유명하기 때문이다. 전북불교회관에서는 지역노년물만을 엄선해 조리한다.

김영길 할아버지는 “매일 불교회관에 나와 장기도 두고 손자들이 이따기다 나눈다”며 흡족해했다. 김 할아버지는 “이들 부부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 밥 차려 먹기가 귀찮아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다네 불교회관이 있어 밥당

참배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어르신들의 호응과 달리 최근



“밥도 먹고 부처님도 뵈고” 이곳만의 자랑

준비를 한다. 몸이 불편해 경로식당까지 나오지 못하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전북불교회관 봉사자들은 직접 도시락을 준비해 어르신 댁으로 배달한다.

2000년 개원한 경로식당은 핵가족화에 따라 결식노인들이 늘자 부처님 자비 사상에 입각해 노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마련된 공간이다. 매일 150여명의 어르신들이 전북불교회관 경로식당을 찾아 이곳에서 점심공양을 제공하고 9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한다.

연간 2만50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전북불교회관 경로식당에서는 공양을 하는 한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담소를 나눈다. 그 덕에 전북불

전북 지역 경로식당 운영상황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맞붙어 부부 증가로 어르신들의 결식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경로식당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후원하던 봉사자들 손길도 차츰 뜸해지고 있다. 전북불교회관에 도움을 준 것은 전북불교자원봉사단(단장 원행·금산사 주지)이었다.

전북불교회관 이원일 사무국장은 “어르신들에게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불자들로부터 최고의 대접을 받고 가는 형태로 만들겠다.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063)251-4942 조동제 전북지사장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웃 언더는 참웃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웃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성고 정은아의 참웃아침 - 웃 맛 걱정 없는 참웃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웃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웃 언더는 참웃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웃 부작용 걱정!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웃,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김쓰면 약이 되는 웃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성심일요일 - 계절의 보석 웃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류 - 협찬

구입엔 꼭 확인을...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웃가네 참웃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